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13, 컬트 토라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자, 오늘은 Boker Tov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지연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여기에서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 중 몇 가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규정을 확인해주세요.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블랙보드 공지사항란에 모두 게시되어 있으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구속 운동, 즉 해석학과 관련하여 민법 토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루었던 이 내용의 의미를 검토하기 시작하십시오. 질문은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단지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넌 그걸 사용해야 해, 알았지? 우리가 오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구약 토라의 일부 문제, 더 어려운 문제 중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특정 해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에세이 문제입니다.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면 원래 오늘 밤에 공개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취소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많은 여러분과 질문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인데, 정말 훌륭합니다. 아직 안 했다면 들어와서 얘기하고 점심 약속도 하세요.

그리고 수업 규모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오픈 포럼에서 일반적으로 하던 일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개 포럼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밤에는 눈비가

내릴 것이라는 얘기라서 꼭 필요한 시간보다 늦게 운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운전해 겁쟁이인 것은 아니다. 나는 결국 미네소타 북부 출신이다. 하지만, 테드, 당신은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제 생각엔 그런 이유 때문에 후자보다 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제사, 제사장 직분, 성소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관점에서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곳은 시편 51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나는 올해 이 수업에서 이미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파크스트리트교회에서는 성만찬이나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다 함께 시편 51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생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소개하기에 적절한 시편이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마도 금요일부터 그 일부를 부르는 법도 곧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이 함께 모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시편 51편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는 내 죄과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확실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 되었으니 진실로 진실함을 원하시나이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깊은 곳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나는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네가 으스러뜨린 뼈들이 기뻐하게 하라. 내 죄에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시오.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실제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노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소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멈춰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히 성소, 신권, 희생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업을 함께 시작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 마음의 외침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특별한 의제와 불안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안팎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병이나 기타 압박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충분히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일 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담대히 기도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을 예배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

글쎄, 우리가 조금 검토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먼저 작은
다이어그램만 있거나 다이어그램이 아닌 모델 사진이 어떻습니까? 성역의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로 보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얻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된 성막의 다양한 모형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출신의
분들은 랭커스터 카운티에 있는 실물 크기의 건물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본 후에야 그것에 대한 말로 설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여기에 제단, 물두멍, 세면대가 있고, 물론 바로 여기 바로 위에
천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단은 나르는 채가 매우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이것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으면
이 다이어그램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느낌을 줍니다.

몇 가지 소개 문제. 토라의 범주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카테고리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소리쳐보세요.

속삭여주세요. 하나 말해주면 나도 하나 말해줄게. 트레버.

민사, 좋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시민적, 사회적 토라는 모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메리,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예, 도덕적, 윤리적, 도덕적 의무, 문화, 시간대 등에 걸쳐 적용 가능한 것 등입니다.

물론이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Matt? 의식과 의식. 좋아요, 그렇죠. 이는 우리에게 의식과 상징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상황과 서로 다른 예배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우리 모두는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아, 난 성공회 안 가, 로마 카톨릭 교회 안 가, 성공회나 루터교 안 가' 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이므로 의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배하는 모든 장소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배당으로 걸어갑니다. 글쎄요, 오늘 아침에는 예배당이 없지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일어서면 찬양대가 시작되고, 우리는 아마 세 곡을 부르는 찬양단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3개죠? 때로는 짧은 경우 4개도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대개 악기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의식이 있고, 고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전례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위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종류의 기호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구약의 예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상징주의, 상징주의와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교훈이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비록 우리의 특별한 의식이 여기저기서 어느 정도 변할지라도 우리는 그 교훈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기는 흥미로운 책이다.

제가 이전에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월슨 박사의 책에서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교 어린이나 보수주의자, 또는 무엇이든 자신의 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아이가 실제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부하면 출애굽기처럼 정말 재미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레위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레위기부터 시작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도량까지 미루었던 책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언급했던 것인데, 그것은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거기에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이것을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물론 희생과 관련된 모든 것은 바로 그와 똑같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글썄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한다면 여기에 광범위한 개요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1장부터 10 장까지는 희생과 신권 성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지적인 것처럼 거룩하신 분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11장을 선택하여 실제로 27장까지 가보면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11장부터 27장은 일부 학자들이 거룩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지루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도 시간과 공간이 있고 우리 문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께 나아가는 길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은 그분의 위엄과 초월성,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과 절대적인 혐오, 죄에 대한 절대적인 혐오 측면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 물론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장황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얼마나 절대적으로,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조차 나지 않는지, 우리 예배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특별한 시간과 신성한 공간을 위해 구별되어 하나님께 다가가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발코니를 즐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정말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완고함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있을 때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사람들을 쿡쿡 찌르세요.

나도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들이 먹거나 마시거나 이야기하거나 iPod을 가지고 놀고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후 4시에 그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시간, 신성한 공간인 시간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당 날에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좋아, 지금은 내 연단 상자가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소, 신권, 희생 제사에 관한 내용에는 엄청난 역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역설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자. 누군가 나를 위해 역설을 정의합니다 .

웹스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의 다양성에 대한 좋은 정의를 알려주십시오. 사라, 그거 손 들어? 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표면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고 있지만 서로 약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의 일부이자 핵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배 장면과 관련하여 역설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대해 읽은 내용과 희생에 대해 읽은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설을 조금 풀어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찌르고 싶어합니까? 찌르는 시간은 아니죠? 성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빼앗아 간 모든 부를 기억하십니까? 성소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숭고한 본성과 그분의 초월적인 본성에 관한 어떤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경외심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멈추고 생각해 보면 온통 피와 내장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자랐고 닭을 죽이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엉망이다.

이 한 곳에는 거기 있는 것, 그리고 죽음이 주는 유혈과 혼란, 공포와 고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장엄한 아름다움이 병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죄가 그 죽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소와 희생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역설을 알고 나서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취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난장판과 그 공포와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그러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그림을 줄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 오늘 공부한 것에는 온갖 상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가 종종 허에서 굴러다니는 것들에 대해 아주 아주 작은 재평가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체계에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 자신에 대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의 의미.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 모든 접근 방식은 의식적 토라에 대한 토라의 특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물론 그 문맥상 성막이었던 신성한 공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은 분명히 다소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연단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여기서 애니 딜라드(Annie Dillard)를 읽어본 사람 있나요? 그녀는 정말 흥미로운 글을 썼고 나는 그녀를 매력적인 작가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에게 말하는 법 가르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당신이 읽은 것 중 하나인가요, 메리? 이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그것을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의역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돌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의 일환으로 예배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누구 앞에 올지 알았다면, 좋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누구 앞에 올지 알았더라면, 우리는 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좀 구부정하게 앉아서 잡담을 나누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깝고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이다. 그런데 전체 예배의 핵심은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 잠시 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사용되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들은 피흘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지만 여기에 거래가 있습니다 . 레위기 17장 11절은 기본적으로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 그리고 당신이 피조물의 피를 흘릴 때, 그 희생 제물은 기본적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됩니다.

내 죄로 인해 내 생명이 상실되었습니다. 돌아가서 그 구절 자체를 읽어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화해는 당신이 알고 싶은 단어입니다.

시험의 객관식 섹션에 표시되는 훌륭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피흘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서구 문화권에서는 '아, 왜 피 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죽으면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관련 용어인 Expiation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학계에서는 하나를 다른 것과 반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큰 논쟁이 있습니다. 나는 둘 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죄는 죄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흘린 피 때문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죄 곧 너희 죄를 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다음 대사를 거기에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돌아와서 희생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그래픽으로 설명하면 죄가 초래하는 혼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희게 칠하려고 노력하고 깔개 아래에 숨겨 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더라도 죄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은 그런 종류의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희생의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성소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인 우리와 세상에서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직도 필요했습니다. 그의 초월적인 거룩함.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거대한 상징적 그림의 일부이자 소포가 됩니다. 글쎄, 나는 이미 이것을 친밀하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글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으로서 매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배우나요? 글쎄요,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구별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개념이 동일하게 유지됩니까? 즉, 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원칙을 주려고 노력했고, 여러분은 그것을 추출하여 이제 기본적으로 나에게 다시 뱉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되었을 때 참이었던 신약의 신자들인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사실인가요? 다시 말해봐, 렉키.

제사장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야? 희생의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내가 조금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 역시 우리 중 일부가 원하는 만큼 친근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이것이 히브리서이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부활 이후이고,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여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것은 그가 말하는 불쾌한 Marcionite 구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의 진술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참으로 그분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가질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조금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글썄요, 우리는 아직 히브리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몇 구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렉키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7:24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므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도 7장의 끝 부분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멜기세덱 주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여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니라.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이게 변화겠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과 달리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단 한 번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징후를 매우 분명하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하는 그림과 제가 집에서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는 심오하고 심오한 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과 중보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훌륭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그걸 염두에 두고 픽업해서 성소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서 우리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걸 잡았나요? 그거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작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토론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 그걸 거기에 올려야 합니다. 글썄요, 그냥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심오한 신학적 중요성을 갖는다. 자, 이제 성역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역에 주어진 모든 공간을 주목하십시오. 책을 읽고 있으면 순항하다가 갑자기 24장의 끝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아, 내가 25장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됐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5부터 40까지, 음, 금송아지 사건에 관한 세 장으로 구분되는 성소에 관한 많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주어진 모든 공간을 주목하세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치에 관해 우리가 얻은 내용도 주목하세요. 십계명을 주신 후, 특히 21장부터 23장까지의 토라 전체가 끝난 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나답과

아비가 산으로 올라가는 언약의식을 비준한 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괜찮은? 25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장소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 장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앞으로 치러질 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송아지에 관한 장들은 아마도 에덴동산 다음으로 가장 비극적인 장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언급하겠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장소에 관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교제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는 아론에 관한 지시를 받고 있으며, 아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를 지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Aaron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는 대중의 불안에 흔들리며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에게 도전했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약간 흥미로운 진실의 왜곡입니다. . 첼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불에 넣은 후에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 그래서 Aaron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금송아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의 많은 신들 중 하나가 소의 패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론의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송아지 형태를 만들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숭배의 최악의 경우이다.

아론은 이렇게 처음 세 계명을 매우 성공적으로 어겼습니다. 물론 이는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의미한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언약의 돌판을 깨뜨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의 장소, 당신의 면전에서 거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모세의 놀라운 중보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읽을 때, 특히 33장과 34장 시작 부분에서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해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소를 만들 때, 그것이 바로 여기에 너무 많은 공간이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지시 사항, 깨어진 언약,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소의 실제 형성에 관한 다섯 장의 추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건 그렇고, 우리는 금송아지 위에서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아론이 이집트의 어떤 종류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그룹에 대한 묘사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룹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그룹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성소 장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어진 그룹들이 있었고, 에덴동산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

장과 10장을 보면 몇 달 후에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룹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천구에서 오는 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황소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발은 송아지 발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탱하는 것에 관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궁창 아래에는 그룹들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어떤 것이 적어도 송아지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Wick 박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주요 제국의 주요 왕들의 주요 알현실이 이 크고 커다란 돌날개 생물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

그리고 그 생물들의 어근은 케루빔(Cherubim)과 케루브(Keruv) 와 관련이 있습니다 . 따라서 거기에도 몇 가지 연결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글썄, 그것은 우리가 성소로 계속 가야 할 약간의 여담입니다. 본문에서 이에 대해 읽을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곳을 믹다쉬(mikdash) 라고 부르는데 , 이는 구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소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코데쉬(kodesh) 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장소에 대한 실제 설명입니다. 이는 단어 자체에서 이곳이 구별된 성역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조류 보호구역도 있죠, 그렇죠? 그곳은 따로 분리된 장소,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실제로 이것의 또 다른 측면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웃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헤인(shahein) 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 미 쉬칸 입니다 . 그러므로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누가 우리 이웃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남의 천막, 오헬 모에드(Ohel Moed)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곳이고 그 다음에는 분명 나중에 아론을 만나셨던 곳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는 몇 가지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계속해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단어 자체가 목적에 대한 매우 강력한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말한 에덴 이후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걸으셨던 놀라운 조화로운 관계 사이에 완전한 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은 쫓겨났고 그룹들은 거기에 배치되었습니다.

성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모일 때, 에덴 서사시가 최종 정점에 도달할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시작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소는 그것을 향한 한 걸음이다. 그것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그의 백성 앞에 거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금송아지와 우상 숭배, 그리고 깨어진 언약을 암시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육신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도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7장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임마누엘은 8장에서 네 번 더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극적인 진술이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너무 많이 읽었지만 그것은 극적인 진술입니다.

요한복음 1.1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맥락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불가분한 결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1.14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당신을 통해 다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은 유대인 청중들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충격적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요한의 글을 읽고 있는 청중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성막에, 지금은 성육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잠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단어는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맥락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늘의 거처를 예표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토라의 전체 체계, 특히 지금 우리의 토라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작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지.

따라서 해당 참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고든 휴겐버거 (Gordon Hugenberger)에게서 직접 훔쳤습니다. 그는 나중에 성전이 되는 성막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그린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에덴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성전으로 가는 길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다음 구조에서 여기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곧 거기로 갈게요. 그럼 이상으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자가 휘장을 통과하여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도 제사장은 피를 취하여 제단에 뿌립니다. 그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인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어쨌든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또 다른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카시아나무로 만든 프레임입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시내산 지역에서 자랍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포스터 트리입니다.

사실, 아마도 유일한 실제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크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지리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듣게 될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눈에 띄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는 연간 최대 4인치의 비가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은 살아남아서 뿌리를 아주 아래로 보냅니다. 비가 많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나무는 질긴 나무이므로 성막의 틀은 아카시아나무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주변의 커튼은 다시 상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구별될 것입니다. 네, 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로 구별되어 있으며, 휘장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실제 성소 자체 안에는 뜰을 통과하면 4겹의 휘장이 있는 천막 자체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요. 케루빔님, 나는

이미 그것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에덴을 상기시키고, 그룹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잠시 후에 다시 도표를 그리겠지만 그 구조는 지성소, 내성소, 그다음에 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증거판을 보관하는 상자, 즉 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언약을 기억하여 두 개의 언약 돌판을 만들었으니 하나는 종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백성을 위한 것인데 이 상자에는 언약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Ark)라고 부릅니다.

아론은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위에 그룹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또한 궤의 덮개와 궤의 덮개를 가리고 있습니다. 법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Kippurah, Kippurit가 여기에 있는 단어이고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단어 Kippurit 에 유대인 친구가 있다면 Kippur를 듣게 될 것이고 아마도 Yom Kippur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뉴욕시 발음, Yom Kippur.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Yom Kippur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속죄일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에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돌판이 들어 있는 이 방주 위에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나오면 다시 그림이 잠시 나오는데, 지성소 북쪽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은 빵을 놓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빵을 내놓고 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썄, 그 당시에는 사람의 생계의 상당 부분이 빵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60% 정도가 빵 같은 것에서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빵은 생명의 근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었고,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연관성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실제 성소에는 빵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상징적일 것이며 살아있는 빵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나중에 매우 상징적인 구절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영을 상징하고 연결하기 위해 오는 빛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멀리 밀어붙이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분해하고 어디에서나 삼위일체를 찾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 가지 주요 부분을 볼 때 제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가구로 말하자면 성막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임재의 떡이고, 영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좀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그뿐 아니라, 휘장 바로 옆에 분향단을 두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는데, 그 향이 올라가면 덮개와 구름이 되어 보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앞에 향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은 보호하기 위한 보호 덮개였는데, 이 덮개는 다시 매우 흥미로운 상징적 지표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에 주목합니다.

사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이미 그런 일이 나옵니다. 정확히 어떤 시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봐야 하는데 기도가 향이요, 향이 기도를 대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안뜰로 나가면 제단 자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제단. 우리가 그 크기를 풀어보면 아마도 각 측면이 약 6피트 정도 될 것입니다. 나무지만 놋으로 입혔으니 분명히 운반할 수 있고 별로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의 동물을 태워야 할 곳은 제단 위에 있고, 그 제단 반대쪽에서는 그 동물들에게도 피를 뿌렸을 것입니다.

제단과 실제 성막 사이에는 때때로 물두멍이라고 불리는 대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계속되는 희생물의 모든 피와 핏물을 처리한 후에는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대대적인 청소 과정이 일어나야 하므로 물두멍도 그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다이어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훨씬 더 정교한 다이어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동쪽이 입구예요. 지성소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졌음을 주목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덮개와 그 위에 그룹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호입니다. 그림을 알겠지만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

들어와보면 제단 양쪽에 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퉁이마다 조금씩 튀어나와 있어요, 레베카. 동물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냥 죽었나요? 아니요,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입장에서 약 1,500년을 빨리 감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랍비 자료에서 지침을 읽을 때, 아시다시피 1세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대 자료, 예수께서 살았을 텐데, 그 당시에 서 있던 성전에 대해 말하면서, 벽에 갈고리가 사방에 있었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 이 양을 가져올 때 갈고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물을 매달고, 그 시점에서 죽이고, 피를 모으고, 신부에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관련된 혼란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한 정말 생생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된, 그리고 죄를 다루는 데 관련된 공포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시야를 잃었고, 아마도 그것은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교육 도구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아마도 당신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은 The Passion of Christ를 보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면은 그랬지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지 조금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예'입니다. 어쨌든 제단, 각 모서리에 있는 돌출부, 뿔을 상징하는 것, 실제로 위로 뻗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단 위에 있는 모든 나무를 보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고 있고, 물론 이것들이 그 나무를 제자리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자체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야나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들은 성소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향을 피우는 일, 매일의 활동, 진설병 상을 처리하고 등잔과 등대를 계속 불타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끝없이 불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음, 그것은 올바른 단어가 아닙니다. 영원히 불타야 합니다. 또한.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작은 다이어그램입니다. 몇 가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나서 희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별되는 것의 일부는 기름부음의 과정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다. 기름부음은 좋은 용어처럼 들리지만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동사는 mashach 입니다. 여기서 Mashiach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며 그리스어로 Christos, Christ로 번역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기름부음받은 자이신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뿐 아니라 왕들도 구별하는 일에는 기름 부음과 기름 바르는 일이 포함됩니다.

성소를 세우는 것, 안수식을 하는 것 등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서, 레위기의 처음 10장, 처음 9장,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제 생각엔 그것도 38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 귀와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적어도 랍비의 생각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맵소사, 알았지?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걷습니다. 어쨌든, 조금 제쳐두고. 향은 다른 향과 달리 성막에서 태우는 특별한 향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혼합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그들은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성막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시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향과 관련하여 불경스러운 것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5분 후에 제안하겠습니다. 성소는 반 세겔의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반 세겔은 약 5분의 1온스입니다.

처음 이 글을 읽으시면 일회성 기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서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으면 그것이 그들이 정기적으로 수집한 것이라는 느낌과 인상을 얻게 되며,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겪을 때 매우 분명해집니다. 내가 성전세, 예수님,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Trevor가 보낸 거 아는 사람 있나요?

그분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거기서 그들은 환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재미삼아 이것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늘이 유월절이라 환전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동부 제국 각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적절한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 돈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환전상의 문제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사원 경내로 바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사라? 응, 물고기는 언제? 응, 알았어, 알았어.

글쎄, 여기에 거래가 있습니다. 반대자들 중 일부는 '피터 소리를 들었나요? 응, 그랬지, 알았어, 알았어. 어떤 사람들은 다소 도전적입니다

.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되, 당신의 주인도 성전세를 내셨느냐? 그리고 피터는 물론이지, 물론이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그는 피터, 그냥 가서 이 물고기를 찾아보는 것이 어때요? 그리고 물론, 물고기 입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에게도 성전세가 충분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계속해서 아들, 즉 왕의 아들인 자기 자신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 세겔 세금 아이디어를 포착한 신약성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쎄, 계속하자.

성막 자체에서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는 기름부음에 대한 논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인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3장은 성막을 운반하고 돌보는 측면에서 그들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뜰 휘장 너머의 일종의 외부 경계나 장벽이 되기 위해 물건을 포장하고 운반하고 그 주위에 진을 치는 사람들인 레위인의 기능이었습니다. 물론, 일단 성전이 생기면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른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들도 선생님이세요.

그들은 또한 가수와 음악가가 될 것입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은 지금은 성막이 아닌 성전의 성소에서 음악으로 예언하고 노래도 하는 성전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람들의 반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논쟁의 뼈대가 될 것입니다. 둘 다 토라를 가르치는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을 갖고 계시며, 그들은 가르쳐야 하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게 되지 않습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를 일반적인 제사장과 레위인으로부터 대제사장 자신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집례할 때 입었던 옷들을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이 이 거의 모든 것에서 찾아보기 원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재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러면 먼저 에봇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 에봇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경찰이 외출할 때 입는 조끼인데 형광 오렌지색이 붙어 있고 벨크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 허리에 묶는 끈이 있는데 너무 길 수도 있나요? 자, 조금 더 아래로 확장해 보세요. 앞부분이 있어요.

저 작은 조끼처럼 어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등받이가 있고 옆면에 함께 걸어주는 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옷은 아닙니다.

겉옷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깨에는 에봇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그는 중보 역할의 일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봇 앞부분에는 가슴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선 돌이 12개 있습니다. 이제 아론의 마음 위에는 그것을 어깨에 메지 않고 이제 그 돌에 표현된 이스라엘 자손 12명을 그의 마음 위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12개의 돌은 각각 12지파 중 하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림 과 둠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 부분 안쪽에 우림 과 둠뮴 이라고 불리는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안은 빛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or이고 복수형이 orim , urim 이기 때문에 빛과 완벽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 거기에서 유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

Tam은 전체, 완전한 등을 의미하므로 tumim ,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과 완벽함. 음, or는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고, tumi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시작한다고 보는 다른 방식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포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빛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저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주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것들이 완전함입니다.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28장은 아론이 결정을 내리는 수단을 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림 과 둠뫼 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내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든, 그가 어려운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는 어떻게든 그에 관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실제로 이 물건이 적어도 한동안은 다윗 시대를 거쳐, 아마도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는 몇 가지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는 또한 보라색 옷, 짙은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 밑부분에는 방울과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석류는 아마도 땅의 비옥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석류에 들어 있는 씨앗의 수는 석류의 열매성과 상징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종소리는 그가 내부 성소에 있는 동안에도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번도 있어요. 터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나요? 주님께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는 중재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순결함을 나타내는 흰색 리넨 속옷을 입습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말했지만,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그대에 그분은 중보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도적으로, 절름발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음, 우리는 안수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장을 읽으면 그들이 얼마나 주의 깊게 이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우연한 것도, 즉흥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발적인 예배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모욕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불이 그들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서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새로운 단계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교훈을 가르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보통 그는 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 데 있어서 매우 자비롭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에 대한 제한 사항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실제로 명시화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요.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1장은 이러한 제한 사항 중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체적인 개념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옷을 찢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주례하는 동안 술을 마실 수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의 이면에 있는 문제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이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곳으로 돌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빠른 구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 24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안은 아마도 그들이 그곳이 그들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산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오만하게 번역하면서 우리는 그의 면전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매우 끔찍한 방식으로 그 주제넘은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야.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 사람은 수염을 다듬지 않고 처녀와 결혼해야 하며 신체적 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열에 속한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10시가 지났어 . 다음 번에는 정말 빨리 희생을 치르고 끝내고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